

社會行爲의 研究 : The Ethogenic Approach

閔 庚 煥
서울대학교 心理學科

Ethogenics 혹은 ethogenic approach는 1972년 Rom Harrè와 Paul Secord가 'The explanation of social behaviour'에서 사회심리학에 대한 자신들의 독특한 입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그嚆矢이다. 微視社會學(microsociology)과 構造人類學(structural anthropology) 및 日常言語分析(ordinary language analysis)의 여러 學問的 傳統을 사회심리학에 接木시키려는 노력(Harrè, 1977)으로서의 ethogenics는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에 대하여 회의를 가져왔던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有力한 代案으로서의 철학 및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注目을 받게 되었고 Harrè의 主導 아래 발전하여(Harrè, 1979, 1983; Harrè et al., 1985) 오늘날 Europe에서 Moscovici(1984)의 社會表象(social representation) 연구의 定立과 더불어 사회심리학 연구의 새로운 흐름을 대표한다.

Ethogenics(ethos+genesis)는 Harrè에 따르면 사회행위(social action)의 發生機構를 탐색하는 접근법이다.* 이는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실험실 內의 연구에서 벗어나 현실생활에서의 生態에 초점을 맞추는 ethology가 등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행위의 연구도 실험실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ethology가 동물이 연구대상인데 반하여 ethogenics는 인간이 그 연구대상이므로 인간과 동물간의 質的 차이를 인정한다면(이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ethogenic approach의 중심개념의 하나인데) 그 연구방법론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Harrè는 주장한다.

Ethogenics의 등장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Harrè는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paradigm이 인간의 사회행위의 이

* 이 定義를 쫓는다면 ethogenics는 社會行爲發生學이라고 우리 말로 옮길 수 있을 듯 싶다.

해에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따라서 사회심리학은 새 paradigm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Harrè를 좇아 사회심리학의 전통적 paradigm의 正體와 그 문제점을 살피고 그가 제시하는 새 paradigm을 論議해 보자.

사회심리학의 전통적 paradigm

Harrè에 의하면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은 다음 세가지 철학적 기반 위에 성립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각각 인간의 機械論的 模型, Hume의 因果概念 및 論理的 實證主義 方法論이다.

(1) 인간의 機械論的 模型(The Mechanistic Model of Man)

Aristotle과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라 과학자임을 자부하는 심리학자들은 기계론적 인간관을 취한다. 이 입장은 다음 세가지 특징들로 표현될 수 있는데 (i) 인간의 행동은 외부 자극(환경)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S-R 혹은 S-O-R 모델) (ii) 따라서 有機體에 內在하는 요인들의 공헌은 무시되거나 極小化되고 (iii) 동일한 類型的 原因(cause)이 존재하면 그 結果(effect)는 동일하다.

要約하면 인간은 자극상황에 종속되어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심리학이 과학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계론적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심리학자들이 오늘의 심리학의 主流를 이룬다.

(2) Hume의 因果概念

심리학자들의 原因(cause)에 대한 개념은 David Hume(1777)을 추종한 것이다. Hume에 의하면 (i) 因果법칙은 두 事象간의 일정한 相關을 표현하는 것이고 (ii) 원인과 결과간의 연결양식은 경험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심리학에서 신봉되는 소박한 결정론은 기계론적 인간관과 Hume의 因果개념의 결합에서 나온 것으로 (i) 행동주의자들은 외부자극이 효과적인 원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ii) 有機體 요인을 무시하거나 혹은(외부 자극의 주된 영향을 돕는) 보조적인 조건으로 輕視함으로써 원인과 결과간의 연결양식의 분석에 제약을 가져온다. 즉 Hume은 因果關係를 두 독립적인 事象간의 통계적 관계로 定義하므로(Hume에게 있어서 因果 관계는 한 事象과 이에 後續하는 事象간의 規則的 連續일 따름) 이를 답습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원인-결과 관계가 일어나는 有機體의 존재(더불어 有機體의 自發性, 生成力 등)는 무시되고(인간의 지위는 당구공의 지위로 비유된다), 다만 원인-결과(자극-반응)간의 연결의 반복적인 출현을 확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가 되는 소박한 결정론이 지배하게 된다.

(3) 論理的 實證主義

심리학의 전통적인 방법론을 형성하고 있는 철학으로서의 논리적 실증주의는 1920년대 초기에 Carnap, Schlick 등 소위 Vienna Circle에 의하여 수립된 思潮이다.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은 (i) 定義의 이론으로 操作主義(operationism)와 (ii) 意味의 이론으로서 檢證主義(verificationism)를 강조하고 (iii) 理論(theory)의 역할을 주어진 事實의 논리적 조직을 제공하는 데 국한시킨다. 이에 따르면 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意味가 검증방법과 동일하며(즉 증명되어질 수 있는 진술에 의하여 의미가 제공되며) 이 원칙을 만족시키는 개념들의 체계로 과학은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이론은 論理的 元素主義(logical atomism)의 모습을 띠어, 모든 과학적 진술은 논리적 元素인 基礎事實들로 분해되어 연구된 뒤 이 논리적 元素들로부터 기초적인 形式論理를 사용하여 보다 복잡한 과학적 진술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는다(그 가장 전형적인 例가 실험연구로서 이에는 복잡한 행동이 단순한 행동들의 加法 함수라는 假定이 존재한다). 즉 복잡한 개념(혹은 진술)을 단순개념들의 단순 논리 기능들로 환원함에 의하여(이에는 경험적 조작의 도움을 받는다) 과학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事實들의 확고한 기반 위에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리학에서 경험주의를 강조하고 이론이나 개념화를 소홀히 하며 事實(혹은 관찰)을 idea 보다 上位에 놓는 性向은 논리적 실증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가 사회심리학을 포함한 전통적 심리학의 방법론의 礎石을 이룬다. 과연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형성된 사회심리학의 방법론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 Harré는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i)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自動적으로 가치있고 신뢰로운 과학적 지식을 산출하지 않는다.

(ii) S-R 및 S-O-R paradigm은 단지 객관성의 환상만을 산출한다.

(iii) 동물 및 실험연구는 대부분의 인간상황에 일반화 될 수 없다.

(iv) 사회심리학은 主된 현상인 意味(meanings)를 배제하고 그 主된 행동 산출양태인 인간의 行爲執行性(action agency)을 고려함이 없이 연구되어 왔다.

위의 관찰은 아래에서 사회심리학의 연구방법을 지배하고 있는 실험연구의 문제점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수궁이 갈 것이다.

(i) 사람을 각 처치조건에 無選割當함으로써 중요한 사람 變數(person parameter)가 未知의 범주로 분류되어 실험결과를 불완전하게 하거나 些少 혹은 진부하게 만든다; 실험에서 무선헌당은 個人差 변인의 제거를 위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결과의 해석에 큰 제약을 가져 오는데 왜냐하면 처치 집단간의 차이는 각 집단에 속한 모든 피험자들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고 일부 피험자들에 국한된 차이이기 일쑤이나 실험절차에서 사람변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떤 피험자들이 긍정적 결과에 기여했는지(즉 처치수준과 사람변인의 상호작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사람변수를 배제하는 실험연구의 결론은 엄격한 의미에서 因果的이라기 보다는 통계적(즉 相關的)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으며 皮相的이며 사소하고 불완전한 연구를 벗어날 수가 없다.

(ii) 실험연구의 大宗을 이루는 parametric study (變因연구; 독립변인/종속변인으로 변인들을 분리하여 變因들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법)는 効果を 유발하는 조건들이 그 正體를 유지하면서 상호 독립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로 분리될 수 있다는 假定 위에 성립한다. 즉 모든 변인들을 일정하게 하고 단 하나의 변인(독립변인)만을 變하게 하여 이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라 法則적으로 변화하는 변인(종속변인)을 관찰하는 것이 물리학의 고전적 방법론으로서 심리학에서 도입하여 그 主된 연구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Harrè는 變因연구가 사회심리현상의 연구에는 적합치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다루는 현상(例; Boyles의 법칙)과 달리 대부분의 사회행동의 조건들은 內的으로 연관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구조로부터 한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이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갖는 관계에서 분리시키면 이 요소의 성격(nature)이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악수의 의미는 맥락(즉 구조)에 따라 달라져서 내기장면에서의 악수와 환영하는 장면에서의 악수는 서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

(iii) 실험연구에서는 피험자로 분류된 행위자가 처해진 처치조건을 넘어서서 해석하고 思考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조건은 처치조건들과 상호작용하는 피험자의 해석체계의 산물로서 신념 등에 의하여 영향받으므로 오직 外的 처치와 결과 행동만을 문제삼으면 행위의 중심적인 결정요인은 놓치게 된다. 그 좋은 例는 Milgram의 복종실험(1963)을 Mixon(1971)이 신뢰실험으로 再解釋한 것이다. 또한 構成概念(construct)을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변환하고(operational definition) 이를 해석하는 것은 연구자의 任意로 결정될 만큼 不確定的인 것으로(Gergen, 1982) 실험결과는 論理的 實證主義에서 주장하는 元素的 요소의 역할을 부여할 만큼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iv) 실험은 일종의 社會事象으로 간주될 수 있다(지시문이 읽혀지고 과제

가 수행되고 명예가 얻어지고 잃어지는 등). 만약 실험장면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社會事象의 典型이라면 실험결과는 현실세계에서의 상호작용에 어떤 의미를 던져 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세가지 점에서 사회심리실험은 전형적인 社會事象이 아니다.

(a) 실험은 흔히 실험실이라 불리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현실세계에서의 복잡하고 상징적인 事物들로 충만한 환경에서는 상황의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역할-규칙 체계(role - rule system)를 좇아야 할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험은 극도로 단순한 사회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때 나타나는 행동은 현실세계에서 가장 애매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이고 특색없는 반응이 되기 쉽다.

(b) 실험에서의 상호작용은 의미있는 관계가 아니라 他人들간의 一回的인 만남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때의 자기공개(self-disclosure)는 왜곡된 것이기 쉬우며 그 결과 사회심리실험에서 발견되는 것은 상호작용의 깊은 理解보다는 자기방어적 儀式인 경우가 많다.

(c) 실험장면에서는 실험자偏向, 期待副應性向 등의 왜곡요인들이 작용한다. 이들을 제거하려고 Rosenthal(1966) 등은 실험자를 기계(machine)로 代替하는 方案을 提議하지만 사람은 기계와 사람에게 각기 달리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심리실험에서는 오히려 왜곡을 加重시킬 따름이다.

(v) 마지막으로 실험결과의 해석時 연구자들은 흔히 분포상 신뢰롭지 않은 통계치들을 신뢰로운 것처럼 취급하는 통계적 오류를 犯한다. 이는 특정행동을 보인 표본의 일부 구성원들을 토대로 표본의 각 구성원이 해당 행동을 보일 확률을 추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Milgram의 실험에서 60%의 피험자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치명적인 전기속크를 주었다면 어떤 개인이 지시 下에서 치명적인 전기속크를 줄 확률이 60%라고 추론하는 오류가 이에 속한다. 분포가 신뢰롭지 않을 때에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결과의 해석이 애매할 수 밖에 없는데 고전적 실험연구에서는 이 사람변수의 고려가 전혀 무시된다.

새 paradigm의 摸索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의 전통적 paradigm과 이에 근거한 방법론, 특히 실험연구가 사회행위의 연구에 적합치 못하다는 Harrè의 지적을 소개하였다. Harrè는 사회심리학의 새 paradigm으로 다음 세가지를 提議한다.

(1) 인간의 擬人觀的 模型(The Anthropomorphic Model of Man)

인간의 擬人觀的 模型은 Harrè 에 따르면 ‘科學的인 목적을 위해서 연구대상인 사람을 人間(human beings)으로 취급한다’(Harrè & Secord, 1972, p. 84)는 선언으로 要約된다. 이 모형에서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며 그 다름의 인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 목적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그 복잡성에 있어서 존재하는 다른 모든 體系(自然의 것이든 人工의 것이든)와는 수준이 다르므로 인간보다 낮은 복잡성을 지닌 모형은 인간을 연구하는 모형으로서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人間觀은 (i) Kant의 哲學에 起源하는 Strawson, Hampshire 등 현대 철학자들의 인간에 대한 定義에 입각하는데 (ii) 이에 따르면 인간은 意識的인 自己省察(conscious self-monitoring) 혹은 反省(reflexivity)과 言語使用의 두가지 능력(power)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이 두 능력은 인간에게 세번째 능력을 부여하는데 즉 인간은 意識的으로 역할(roles)을 수행하고 규칙을 따르고 계획(plans)을 수립하는 行爲의 執行者(agent of action)로서의 능력을 갖는다. 이 능력들에 힘입어서 인간은 자신의 수행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고(commentaries)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accounts). 이러한 행위들이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양상들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Harrè의 입장이다.

(2) 構造研究(Structural Study)의 選好

앞에서 變因에 의한 설명(parametric explanation)이 첫째, 진정한 의미의 因果관계의 理解가 아니라 통계적 상관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며 둘째, 많은 사회심리현상들이 內的으로 연관된 구조를 갖고 있어 변인들로 나누어 분석할 때 그 正體를 상실하는 점 등 때문에 사회심리연구에 적당치 못함을 지적하였다. 새 paradigm에서는 構造人類學(structural anthropology)의 영향을 받아 構造에 의한 설명(structural explanation)이 選好된다. 이 방법론에서의 연구절차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i) 과학자는 事物과 事象에서의 규칙적(non-random) pattern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ii) 이 규칙적 pattern의 지식이 批判的 記述(critical description)이다. (iii) 과학적 설명은 비판적 기술 단계에서 확인된 규칙적 pattern을 산출하는데 책임이 있는 因果機制의 記述에 의하여 성취된다. (iv) 과학은 비판적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규칙적 pattern을 산출하는 未知의 機制를 model 혹은 比喻를 사용하여 推定하려고 노력한다. (v) 이와 같은 진보된 과학의 연구과정을 모방하여 사회심리학의 연구방법으로 삼는다.

즉, 構造研究에서는 사회행위를 관련된 變因들로 分解하여 그 관계를 연구하

는 대신 배후의全體構造를 탐색한다. 연구자는 비판적 기술에 의하여 발견된 규칙적 pattern, 즉 産物(product)의 확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産物을生成하는 機制, 즉 型板(template)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product와 template의 예는 생물학에서 有機體의 해부학적 구조(product)와 DNA의 구조(template), 그리고 언어학에서 遂行(product)과 深層構造(template)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 構造 혹은 template의 발견은 Harrè에 의하면 節制된 想像(disciplined imagination), 즉 모델의 사용을 통하여 未知의 構造(혹은 template)를 측정하는 방법론은 자연과학의 이론적인 연구에서는 보편적이다(그 古典의인 예는, 진화론에서 家內淘汰(domestic selection)를 出處 모델(source model)로 하여 자연도태(natural selection)의 機制를 밝혀낸 것, Harvey가 혈액체계를 水力체계에 비유하여 모세관 현상을 추정한 것, virus가 관찰되기 이전에 bacteria를 出處 모델로 하여 그 機制를 탐색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특히 행동주의)에서는 논리적 실증주의의 영향 때문에 흔히 비판적 기술 단계에서 설명을 멈추고 더 이상 추구할 지식이 있다는 것을 否定한다. 그 이유를 실증주의적인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의 예에서 보듯이 진보된 자연과학에서는 모델을 사용하여 未知의 因果體制를 추론하는 방법론을 擇하고 있는 것이다.

(3) 研究對象으로서의 行爲(action)의 강조

새 paradigm의 세번째 面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 (i) 행동은 behavior, action, act의 세 수준으로 구별되며 이 구분이 사회심리연구에 필수적이다.
- (ii) 사회행동은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반응(response)이 아니라 意味(meanings)에 의해서 증재되는 行爲(action)로 생각되어야 한다.
- (iii) 생리학은 행위의 이론인 심리학과 명백히 분리되어야 한다.
- (iv) 日常言語가 행위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가장 정교한 체계를 제공한다.

Ethogenic approach에서는 모든 행동을 behavior로 通稱하는 전통적 심리학과 달리 behavior, action, act 간을 구별한다. 意圖的 행동(目的을 지닌 행동-意識的이든 無意識的이든)은 行爲(action)로서 사회심리연구의 분석 단위가 되며 action의 신체적(물리적) 측면은 behavior로 호칭되고 action의 사회적 의미는 act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文書의 署名이라는 action의 신체적 동작은 behavior이며, 문서의 서명이 항복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act에 의해서이다.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의 연구가 behavior에 초점을 두고, physiological mechanism-behavior 혹은 기껏해야 behavior-action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사회심리학답지 못하였음을 비판하면서 ethogenic approach 에서는 action 을 연구단위로 하여 그 설명(즉 의미)을 act에서 구하는(즉 action-act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방향을 擇한다. 前者가 사회행동을 生理機制나 外的 자극조건으로 설명하는 還元主義者(reductionist) 혹은 행동주의자의 입장이라면 後者は 사회적, 문화적 이유(reasons)로 설명하는 사회과학자의 觀點이다. 행동주의자와 사회과학자의 입장을 例로 들어 비교해 본다면,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을 前者는 날씨, 교통편, 건강상태 등의 요인들로 설명하려 하고 後者は 그 文化集團에 학생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규범이 있는가의 여부(즉 해당 文化集團의 역할-규칙 체계)로 설명하려 할 것이다. 사실상 학생이 학교에 가는 主된 이유는 文化的 규범 때문이지 눈이 오고 안오고는(아무리 두 처치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극히 사소한 영향을 미칠 따름이다. 사회행위를 결정하는 主된 이유와 사소한 이유의 혼동이 종래의 사회심리학이 意味있는 발견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 왔다.

새로운 paradigm 에서는 行爲(action ; product)의 이유가 되는 act의 意味(template)를 찾는 노력이 사회심리학의 필수과제이며 이는 生理機制나 자극조건에서가 아니라 행위의 집행자인 行爲者의 역할/규칙체계(role/rule system)와 계획(plan), 목표(goal) 등을 탐구함으로써 성취된다. 행위의 설명에서는 괴상한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jargonism을 벗어나서 整齊된 日常言語(ordinary language)의 사용을 주장한다. 日常言語는 수천년의 지혜가 蘊藏된 문화적 산물로서 가장 정교한 記述수단이고 현실세계와의 직접적이고 接觸되지 않은 연결을 갖고 있다.

새 paradigm 下에서의 方法論

앞에서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paradigm을 논의하면서 그 중심방법론인 실험연구를 비판하였다. 논리적 실증주의의 方法論의 具現이 실험연구라면 논리적 실증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난은 곧 실험연구에의 제약을 탈피하여 보다 자유로이 적절한 연구방법을 탐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ethogenic approach 에서는 特定方法論에의 執着을 止揚하고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多樣한 방법론의 융통성있는 적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ethogenic approach 가 새 paradigm으로서 전통적인 사회심리학과 달리 사회행위의 深層構造(즉 template) 발견을 연구목표로 삼고, 인간을 행위의 執行者로서 역할, 규칙, 계획을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이유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파악했을 때 새로운 연구방향과 방법론의 地평이 열린다.

Harrè는 사회행위의 template가 행위자의 설명과 자연과학적 방법론 사용(즉 모델 또는 비유의 사용)에 의해서 탐색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론을 정의한다.

(1) 설명분석(Account Analysis)

설명분석의 배후에 존재하는 原則은 Harrè의 소위 'The Open Souls Doctrine'이다. 이에 따르면 '人間을 人間으로 취급할 수 있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言及(commentaries)을, 비록 경험적 비판에 酬應하여 수정할 수 있기는 하나, 현상의 진실한(authentic) 보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Harrè & Scord, 1972; p. 101). 이 원칙에 의하여 설명분석에서의 기본자료는 행위자 본인의 설명이 된다. 설명분석은 행위자가 사회행위 장면에서 갖고 들어가는 資源(resources; 즉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획, 규칙, 역할, 의미, 해석 등의 知識)을 드러내 준다. 설명분석은 흔히 사회생활에서의 自然的인 段落 즉 에피소드 장면에서 행위자가 제공하는 설명(혹은 행위의 이유)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에피소드는 形式的(formal) 에피소드와 因果的(causal) 에피소드로 분류되는데 前者는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明示的 규칙을 언급하는 것이고 後者는 생리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機制를 동원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는 왜? 라는 물음에 대하여 因果的 설명(즉 生理機制나 外的 자극조건에 의한 설명)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인간을 행위의 집행자로 파악하는 ethogenic approach에서는 행위자가 규범적인(normative) 혹은 정당화시키는 맥락에서 제공하는 이유(reason)가 원인(cause)보다 행위의 설명에 적절하다고 간주한다. 사회생활의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뚜렷한 각본(script)이나 원인이 드러나 있지 않은 不明瞭한(enigmatic) 에피소드로서 사회심리학은 形式的 에피소드의 모델 위에서 그 不明瞭性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Harrè는 주장한다.

행위자의 설명은 비록 ethogenist들에 있어서 분석의 기본자료가 되지만 흔히 그 자체로 충분치 못하거나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이때 설명의 진실성(authenticity)은 절충(negotiation)에 의하여 결정된다. 설명분석에서 절충의 표준적인 형태는 三人交渉(두 참여자와 제3의 관찰자로 구성)이다. ethogenics에서는 絶對眞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설명이 원칙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ethogenics는 행위자 본인의 체험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現象學(phenomenology)과 일치하나 현상학에서 개인의 체험을 원칙적으로 主觀的이며 他人의 접근이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데 반하여 ethogenics에서는 본인의 설명을 토대로 他人과의 절충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즉 客觀化될 수 있으며)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존재로 파악한다.

(2) 分析모델(analytical model)의 活用

Ethogenic approach에서는 행위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하고 概念化에 節制를 부여하기 위하여 분석모델을 사용한다. 모델의 사용이 진보된 자연과학에서도 理論定立을 위한 중요한 방법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ethogenics에서는 多樣한 모델의 活用이 가능하나 특히 다음 4 종류의 분석모델이 강조된다.

(i) 劇모델(The dramaturgical model) : 劇모델에서는 社會事象들을 무대공연(stage performance)으로 취급하여 역할(role), 각본(script), 무대장치(setting), 의상(costume), 스타일, 팀(team) 등의 개념들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사회행위를 연극에 비유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역사가 깊거니와(例; Erasmus의 The Praise of Folly, 1549) 현대사회과학에서의 有用한 모델로서 발전시킨 것은 Erving Goffman(1959)의 功勞이다. Goffman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행위는 演技(dramatic performance)로서 사람들은 자신의 演技를 연극의 原理(dramatic principle)에 따라 觀察(monitor)한다. 따라서 사회행위의 분석은 이 연극의 원리에 준거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설명(accounts)도 마치 배우의 演技를 記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ii) 儀式모델(The liturgical model) : 儀式모델에서는 社會事象들을 儀式에 비유하여 분석하며 규칙조건(rule-condition), 역할조건(role-condition), 관습적 종결(conventional upshot) 등의 개념들이 이용된다.

(iii) 게임모델(The game model) : 게임모델에서는 社會事象들을 규칙에 따라 경쟁하여 勝負를 가리는 게임으로 간주하여 접근하며 사회적 전략 및 전술, 사회적 성공 및 실패 등의 개념들이 분석을 돕는다. 가장 역사 오랜 분석모델로 간주되는 게임모델을 현대에 이르러 Garfinkel(1967) 및 Berne(1970) 등이 多樣한 사회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有用한 분석도구로 발전시켰다.

(iv) 作業모델(The work model) : 作業모델에서는 社會事象들을 사회적 產物(social products)의 生産에 비유하여 분석한다. 이 모델에서 분석에 사용되는 개념들의 例를 들면 社會事象의 생산수단의 產出, 상징적 資本(symbolic capital) 등이다.

이러한 모델들의 각각은 복합적인 實體(reality)의 相異한 面들을 照明한다. 모델에 준거한 분석결과는 설명분석의 결과와 대조하여 상호 調整되어야 한다. 理想的으로는, 연구자에 의하여 채택된 분석모델은 행위자가 해당 社會事象을 創出하고 또한 설명에 반영하는 모델과 동일할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자의 분석과 행위자의 설명간의 완벽한 합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ethogenist들은 행위자의 설명이 허위이거나 결함이 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대신

그들이 다루고 있는 現實의 複雜性에 注目하여 연구를 진행해 나간다.

(3) 기타의 방법론

설명분석 및 분석모델의 사용에 덧붙여서 ethogenic approach에서는 Kelly의 repertory grid, 自叙傳(autobiography), ethnography 등이 새 paradigm에 따른 사회심리연구에 새로이 活用될 것이며, 또한 현재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 중 個人 혹은 小集團 연구를 통하여 깊은 理解를 꾀하는 方法들(소위 intensive design에 속하는 技法들) 및 융통성있는 技法들(Q-Sort, 자유질문지법, 자연관찰 및 참여자관찰 등)은 계속 有用할 것으로 전망한다. ethogenic approach는 근본적으로 非數的(non-numerical) 연구법으로서 통계에 대한 의존은 감소되고(Harrè는 통계적 방법이 硬直과 자기제약을 가져오며 分布에 대한 정보 外에는 현상의 설명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지적한다) 대신 構造의 數學的 분석(ethogenics는 마음과 행위의 構造의 속성을 탐구) 一例를 들면 lattice theory나 topology에 触点이 맞춰질 것이다.

Ethogenic Approach의 評價와 展望

Ethogenic paradigm은 사회심리학의 전통적 paradigm에 대한 代案으로서 提議된 것이다. 아래의 몇가지 질문은 새 paradigm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보다 명료하게 하여줄 것이다.

(i) 사회심리학은 새 paradigm을 필요로 하는가?

(ii) 전통적 paradigm의 否定은 심리학 자체의 正體(identity) 否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iii) ethogenic paradigm은 과학으로서의 paradigm인가?

(iv) 전통적 paradigm과 ethogenic paradigm은 상호 排他的인가?

(v) ethogenics의 展望 및 사회심리학연구의 方向을 豫言한다면?

이상 다섯가지의 질문은 하나하나의 논의가 각각 한편의 논문을 요구할 만큼 포괄적인 것이다. 本稿에서는 간략히 筆者의 생각을 記述함으로써 답변의 완성이 아니라 論議의 始作에 그 意味를 둔다.

사회심리학자들 간에 기존의 paradigm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꽤 보편적이다(Moscovici, 1972; Gergen, 1982). 어떤 paradigm 자체가 지니는 論理的 虛構成 때문이 아니라(paradigm은 그 성격상 경험과학의 所産이 아니라 科學者에 의해서 선택되는 觀點임을 注目할 것) 그 paradigm 下에서 얻어진 수확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한다. 사회심리학에서도 기존의 paradigm에 대한 비판은 지난 30여년간의 사회심리학적 수확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가해졌다(동일한 paradigm을 갖고 있는 기초심리학에서는 paradigm에 대한 논

의가 활발치 않음과 비교할 것). 즉 전통적 paradigm 下에서의 연구가 사회 행동의 이해에 기대 만큼의 공헌을 해오지 못했다는 自覺이 paradigm에 대한 懷疑에로 이끌어진 것이다.

사회심리학의 두 paradigm에 대한 最終評價를 내리기 전에 論議되어야 할 것은 전통적 paradigm의 否定이 곧 심리학의 identity 자체의 否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심리학의 identity를 어떻게 定義하느냐에 달려있다. 筆者는 심리학의 identity를 구성하는 두 기둥을 個人에 대한 觀心과 經驗科學의 두 요소로 정리한다. 前者는 사회구조나 社會思想을 다루는 다른 사회과학들과의 구분을 明記하고 後者는 哲學 및 類似科學들과 구별짓는다. 위의 定義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이는 어느 개념이든지 時期尙早 상태에서 意味를 단아버리면 오히려 개념의 확장과 변화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Kaplan, 1964). 그런 면에서 심리학도 특정 paradigm으로 엄격히 定義해 버리면 成長하는 과학으로서의 발전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고 궁색한 처지로 빠져버린다. 현재의 사회심리학이 처해 있는 窮地는 심리학의 identity를 기존의 paradigm으로 정의하고 그 paradigm에서 벗어난 연구를 배척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ethogenic paradigm은 심리학의 identity 속에서 용납될 수 있는 paradigm인가? 우선 ethogenics는 경험과학을 강조하지는 않더라도 명백히 경험과학의 테두리 안에 속하는 paradigm이다. ethogenics의 paradigm을 이루는 세가지 주장 중 인간의 擬人觀的 모델과 構造 연구의 選好가 과연 경험과학의 속성을 지니고 있겠느냐의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Harré가 밝혔듯이 構造연구 및 모델의 사용은 이미 자연과학에서 오래 전부터 타당한 연구법으로 활용해 온 방법이다. 그보다는 인간을 행위집행자로 보고 연구자료를 행위자 자신의 설명에 의존하는 擬人觀的 모델이 엄격한 경험과학자들의 비판의 的점이다. 과연 人間이 존재하는 다른 모든 system과質的으로 다르다는 Harré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筆者의 의견으로는 그 해답은 궁극적으로 경험적 증거에 의하여 얻어질 것이거니와 그 可否가 사회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事實은 인간이 연구대상일 때 연구자는 자신과 동일한 species를 연구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상호 意思交換(communicate)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인간보다 쉽다는 주장은 統制의 측면에서만 연구절차를 파악한 오류이며 사실상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물보다도 훨씬 깊고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다만 기계론적 人間觀 및 그 副産物인 실험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되는 행위자의 설명을 배제하고 통제와 外的 관찰에만 의존하므

로 연구의 신뢰성의 취약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Ethogenics가 經驗科學으로 定立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미묘한 문제는(이는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看過하고 있는 것인데) ethogenic paradigm 下에서의 사회심리학이 사회학이나 인류학 등 다른 사회과학들에 대해서 갖는 identity의 문제이다. 제3자에게는 이 論爭點 자체가 無意味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회심리학자들에게는 사회행위에 대한 심리학자로서의 독립적이며 의미 있는 理解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ethogenics는 그 paradigm속에서 사회학적인 요소와 인류학적인 요소가 多分하다. 우선 사회행위를 사회자극에 대한 기계적인 反應이 아니라 행위자가 自律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서 가장 중요한 特質이 상징(symbol; 그 대표적인 것이 言語)의 交換이라고 파악하는 觀點은 G. H. Mead (1934)를 비롯한 symbolic interactionist들의 영향이 크며 action의 act 意味 파악도 사회학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이와 더불어 특정장면에서의 역할/규칙 체계의 탐색은 보편적 법칙을 指向하는 심리학과는 달리 特定文化의 속성에 관심을 갖는 인류학의 인상을 준다. 그러나 사회학과 심리학의 구분은 社會構造와 個人의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의 문제이며 兩者의 전통적인 人間觀의 차이는 Mead와 Watson의 人間觀을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상호 排他적으로 답습해 온 결과일 뿐 人間觀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회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학쪽의 人間觀을 채택한 것이 심리학으로부터의 離脫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는 심리학쪽의 방법론을 사용한다고 사회학이 그 identity를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人間觀에서는 사회학적 觀點의 타당성을, 方法論에 있어서는 심리학의 우월을 주장하기도 한다(Stryker, 1983). 또한 ethogenics가 특정장면에서의 역할/규칙 체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觀點이 귀납적이기 때문이다. 實證科學에서의 가설/연역적인 방법과 달리 ethogenics는 특정문화, 특정장면에서의 역할/규칙 체계들을 탐색한 뒤, 이 발견들에 기초하여 보다 보편적인 구조들을 탐색해 나가는 上向的 연구태도를 취한다. 가설/연역적 방법이 심리학에 유일하거나 심리학의 유일한 방법론이 아닌 다음에야 귀납법의 사용이 심리학의 identity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 ethogenics가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들과의 正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과학을 指向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몇가일 것이다. 다른 사회과학과의 공통기반이 넓을수록(이 점이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요소인데)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communication과 공동노력이 용이하고 유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Ethogenic paradigm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因子는 두 paradigm간의 선택이 사회심리학에 있어서 不可避하느냐이다. 이는 과연 두 paradigm이 상호 排他的인 존재로서 共存이 불가능한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

見할 때 ethogenic paradigm은 전통적 paradigm의 反對立場을 擇하고 있으므로 兩者는 서로 모순되며 Harrè와 Secord도 전통적 paradigm의 代案으로서 ethogenics를 제의한 것이다. 그러나 Totman(1980)에 의하면 兩者는 동일한 前提와 관심영역에서 출발하되(사회행동을 지배하는 法則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法則의 탐구를 연구영역으로 삼음) 서로 다른 水準(側面)에서 분석을 시도하므로 共存과 補完의 관계로 定義될 수 있다. 즉 ethogenics가 system의 수준에서의 분석이라면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은 meta-system의 수준에서의 파악을 시도한다(system과 meta-system을 간단한 例로 설명하면 '2 + 3 = 5'라는 것은 system이고 '2 + 3 = 5는 算術式'이라는 것은 meta-system이다: Nagel & Newman, 1959). 역할/규칙 체계를 ethogenics에 의하여 찾아낸 뒤, 왜 역할/규칙을 따르느냐의 문제는 system 밖의 문제(즉 찾아낸 역할/규칙 체계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meta-system의 문제)로서 이는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다. ethogenics가 특정인간, 특정 사회에서 관심이 출발된다면 전통적 사회심리학은 抽象화된 인간, 抽象화된 사회장면이 始作부터의 主題이다. 기계론적 人間觀은 관찰자(즉 제3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므로 행위자 본인만이 제공할 수 있는 깊고 私인 정보를 포기하게 되고 반대로 擬人觀的 모델은 행위자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므로 행위자의 意識이나 知識 밖의 것(즉 system 밖의 것)은 연구자의 기계론적 접근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전통적 사회심리학도 ethogenics도 사회행위의 궁극적 설명을 위해서는 不完全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불완전함은 상호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 두 paradigm 간의 排他的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의 ethogenics에 대한 태도는 기존 paradigm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학자들(Moscovici, Gergen, Argyle, Mcguire 등)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Schlenker, 1977; Totman, 1980).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ethogenist들의 연구는 흔히 전통적 사회심리학자들의 눈에 些少하다는 인상을 주곤 한다. 특정장면에서 발견된 역할/규칙 체계는 그 장면을 떠나면 그 자체로 아무런 과학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사회행동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의 발견이 사회심리학의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특정장면에 국한되는 構造의 발견을 위한 노력은 枝葉的으로 보일 따름이다. 이러한 인상은 성격상 귀납적인 ethogenics의 연구가 上位 수준의 법칙을 끌어낼 만큼 年輪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가장 유명한 연구는 학교 아동과 축구관중의 樣式화된 폭력을 ethogenic approach로 설명한 Marsh 등의 1978년 연구이다) ethogenist들의 연구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ethogenics에 대하여 전통적 사회심리학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두번째 이유는 ethogenist들이 전통적인 para-

digm을 그들의 paradigm으로 代置하려고 시도하는 데서 오는 反撥로 해석할 수 있다(Jones, 1985).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paradigm은 상호 排他的이 아니라 상호 補完的으로 파악될 수 있다. 역할/규칙 체계(structure)와 태도, 정서, 가치, 성격 등(parameter)은 사회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지금까지의 사회심리학연구가 parameter의 발견에 주목하여 왔다면 ethogenics의 등장은 structure의 탐색이 마찬가지로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사회심리학은 궁극적으로는 structure와 parameter 兩者의 연구를 포용함으로써 사회행위의 충분한 설명을 기할 수 있으며 기계론적 人間觀과 擬人觀의 모델은 理想的(ideological) 태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같이 인간을 연구하는 有用한 方法論을 제공한다는 觀點에서 受容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연구에는 행위자 자신의 설명과 관찰자의 설명이 모두 有用하게 상호 補充할 수 있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 Gergen, K. J. (1982). *Toward transformation in social knowledge*. New York: Springer-Verlag.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Books.
- Harré, R. (1977). The ethogenic approach: Theory and practic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284-314.
- Harré, R. (1979). *Social being*. Oxford: Blackwell.
- Harré, R. (1983). *Personal being*. Oxford: Blackwell.
- Harré, R., Clarke, D., & DeCarlo, N. (1985). *Motives and mechanisms*. London: Methuen.
- Harré, R., & Secord, P.F. (1972). *The explanation of social behaviour*. Oxford: Blackwell.
- Hume, D. (1777).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London.
- Jones, E. (1985). Major developments in social psycholog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 New York: Random House.
- Kaplan, A. (1964). *The conduct of inquiry: Methodology for behavioral science*. San Francisco: Chandler.
- Marsh, P., Rosser, E., & Harre, R. (1978). *The rules of disord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gram, S.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371-378.
- Mixon, D. (1971). Behavior analysis treating subjects as actors rather than organisms.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1, 19-31.

- Moscovici, S. (1972). Society and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J. Israel & H. Tajfel (Eds.), *The context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Moscovici, S. (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M. Farr & S. Moscovici (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gel, E., & Newman, J. R. (1959). *Goedel's proof*.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Rosenthal, R. (1966). *Experimenter effects in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Schlenker, B. R. (1977). On the ethogenic approach: Etiquette and revolu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315-330.
- Stryker, S. (1983). Social Psychology from the standpoint of a structural interactionism: Toward an interdisciplinary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81-218.
- Totman, R. G. (1980). The incompleteness of ethogenic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17-41.

ABSTRACT

The Study of Social Action: The Ethogenic Approach

Min, Kyung-Hwa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thogenics, proposed by an Oxford philosopher Rom Harre and his colleagues, rejects the traditional paradigm of social psychology; the mechanistic model of man, the Humean conception of causality, and logical positivism.

Instead they argue for a new paradigm. It includes the anthropomorphic model of man, structural explanation, and the emphasis on action rather than behavior. Ethogenics recommends the flexible use of a variety of methodology opposing rigid experimental method strongly advocated by traditional social psychology. Account analysis, analytical models, and repertory grids are typical of ethogenic methodology.

It seems that ethogenics and traditional social psychology tap different aspects of social psychology, and can and should supplement each other in order to giv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human social behavior.